

예금금리 오른다...은행권 고객 유치전 치열

평균 금리 1년 2개월만에 최고...연내 추가 인상 가능성도 광주은행 '저금통 적금' 출시...코로나 백신 접종 고객 우대

국내 기준금리가 15개월 만에 인상되면서 은행권이 예·적금 특판을 내놓으며 수신 고객 모시기에 나섰다.

28일 한국은행 경제통계시스템에 따르면 지난 7월 저축성 수신금리(신규 취급액 기준)는 연 0.97%로, 전달보다 0.03%포인트 올랐다. 이는 2020년 5월(1.07%) 이후 1년 2개월 만에 최고치다.

연내 수신금리의 추가 인상이 점쳐지면서 높은 금리를 고르려는 고객들을 끌어들이기 위한 은행권 유치전이 치열하다.

광주은행은 코로나19 예방 백신을 접종하는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주는 판촉전을 벌인다.

광주은행이 최근 출시한 '저금통 적금'은 소액 적립으로 목돈을 마련하고, 동시에 코로나19 백신 접종 고객에게 추가 우대금리를 제공한다.

이 적금은 최초 가입금액 1원 이상 2년제와 3년

제로 가입 가능하며, 추가 적립은 월 적립 한도 30만원 이내에서 자유롭게 납입할 수 있다.

기본금리 연 1.3%(3년제 기준)에 연말까지 백신 2차 접종을 마치면 0.2%포인트를 더 준다. 적금에 가입한 뒤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상품서비스 안내 등)에 동의한 경우에도 연 0.3%포인트를 얻는다.

'잔테크 서비스'와 연계하면 추가 0.6%포인트를 받는 등 최고 연 2.4%까지 금리가 주어진다.

'잔테크'는 저금리 입출금 계좌의 1만원 미만 잔여 금액을 '저금통 적금'으로 매일 자동이체할 수 있도록 했다. 부담 없이 소액으로 목돈 마련을 돕는 금리 재테크형 서비스이다.

송중옥 은행장은 이날 '저금통 적금' 출시를 기념해 1호 가입자로 나서며 "고객 요구와 금융 동향을 반영해 고객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응원하고자 출시한 '저금통 적금'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립니다

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혜택을 주는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선보이겠다"고 말했다.

시중은행들의 수신금리 인상 움직임은 이날부터 본격화하고 있다.

하나은행은 기준금리 인상을 반영해 예·적금 금리를 지난 3일부터 연 0.1~0.3%포인트 올렸다. 거치예금(정기예금)은 최고 연 0.2%포인트 인상되고, 적립예금(적금)은 최고 연 0.3%포인트 오른다.

NH농협은행은 이날 1일부터 예금금리를 0.05~0.35%포인트 인상했다. 개인 정기적금 금리는 1년 기준 연 0.95%로 이전 금리보다 0.25%포인트 올랐고, 법인 정기적금 1년 금리는 이전 연 0.50%에서 연 0.85%로 0.35%포인트 인상됐다.

우리은행도 이날부터 예·적금 금리를 0.1~0.3%포인트 올렸으며, 신한은행은 지난달 30일부터 예·적금 금리를 0.2~0.3%포인트 올렸다.

SC제일은행은 첫 거래 고객에게 최고 연 1.4%의 금리를 주는 정기예금 특판을 열었고 Sh수협은행은 최대 연 7.9% 금리를 주는 적금을 판매한다.

주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권, 인터넷전문은행도



송중옥 광주은행장이 28일 동구 대인동 본점에서 코로나 백신 접종 고객에게 우대금리를 제공하는 소액 적립 특화 상품인 '저금통 적금'에 1호 가입하고 있다. <광주은행 제공>

예금 금리 인상 대열에 합류하고 있다.

케이뱅크는 지난달 말부터 자사 정기예금 금리를 가입기간 전 구간에 대해 0.2%포인트 일괄 인상했다.

다. 다음달 출범하는 토스뱅크는 '조건 없는 연 2% 금리' 혜택을 주는 '토스뱅크 통장'을 공개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에너지 신기술 체험하세요” 한전 에너지 파크 개관



28일 오후 광주시 서구 차평동 상무시민공원에 조성된 '에너지 파크' 개관식에서 정승일 한전 시장과 이용섭 광주시장 등이 전시관을 둘러보고 있다. /김진수 기자 jeans@kwangju.co.kr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무료 개방

한국전력이 에너지 신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에너지 파크'를 광주 상무시민공원에 조성했다.

한전과 광주시는 28일 에너지 파크 개관식을 열고 시민들에 무료 개방한다고 이날 밝혔다.

한전은 사업비 투자와 시설물 건립을 담당하고, 광주시는 부지(4만1750㎡) 제공과 유지·관리업무를 맡았다.

전시관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9시~오후 6시 운영되며, 일요일에는 휴관한다.

에너지 파크는 지상 1층 규모 전시관 '해담마루'와 복합문화공간, 놀이시설, 휴게공간 등으로 구성됐다. '해담마루'에는 연말까지 태양광 발전 시설이 설치된다.

전시관에는 전기의 가치와 에너지 산업 발전을 소개하는 '에너지홀', 기후환경 변화와 신재생에너지 기술을 소개하는 '그린 플래닛', 4차 산업 기술을 보여주는 '스마트에너지', 미래 에너지를 체험할 수 있는 '에필로그' 등 4개 공간이 마련됐다.

실외에서는 김기범·고근호·김세진·최규철·한갑수·박정용·주리영·최나름 등 지역작가 작품과 놀이 시설을 만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 접수 연장

광주상의 내달 11일까지

광주상공회의소는 '광주·전남 발전 프로젝트 공모전' 접수 기간을 다음달 11일까지 약 2주간 연장한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공모전에 대한 지역민들의 더 많은 관심 및 참여의 기회를 제공하고, 더 다양한 지역경제 활성화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서다.

이번 공모전은 코로나 19로 인한 지역경제 위축 상황에서 급변하는 경영환경 및 산업구조에 대응, 광주·전남지역의 획기적인 발전을 이끌 프로젝트나 아이디어를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광주·전남 지역민 누구나 개인이나 팀을 구성해 참여할 수 있으며, 공모주제는 지역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프로젝트라면 모두 신청 가능하다.

이밖에 공모전을 통해 발굴된 우수한 프로젝트는 광주상의 사업으로 반영, 각 정부 부처에 건의하거나 내년 대선 및 지방선거 공약과제로 제안할 예정이다. 우수 프로젝트 10개를 선정해 최우수상 1명(팀) 1000만원, 우수상 3명(팀) 각각 300만원, 입상 6명(팀) 각 100만원의 상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박기용 기자 pboxer@kwangju.co.kr

광주형 인공지능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

내달 17일까지

광주정보문화산업진흥원은 오는 10월17일까지 '광주형 인공지능 문제해결 아이디어 공모전'을 진행한다

공모전 주제는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역 특화 산업의 문제점 해결과 다양한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이다. 실생활에 적용 가능한 시민 체감형 인공지능(AI)·블록체인 융합 사업안을 내면 된다.

참가 자격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39세 이하 개인 또는 최대 4명으로 이뤄진 팀이다.

1차 서류 통과자들은 오는 10월28일에 본 대회를 거친다. 대상에게는 상장과 상금 300만원(1팀), 최우수상 200만원(1팀), 우수상 각 100만원(2팀), 장려상 각 50만원(4팀) 등 총 900만원 상당이 주어진다.

지역 대회에서 뽑힌 대표팀은 오는 11월24일 각 지역 특화산업 기반 인공지능 부문 수상자들을 대상으로 개최되는 전국대회에 참가한다.

자세한 내용은 호남ICT이노베이션스퀘어 홈페이지(honamict.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백희준 기자 bhj@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3097.92 (-35.72)
↓ 코스닥	1012.51 (-22.31)
↑ 금리(국고채 3년)	1.609 (+0.043)
↑ 환율(USD)	1184.40 (+7.60)

“타자들을 향한 따스한 말 건넨의 아득한 순간”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장막”을 자신만의 언어로 승화

진혜진 시인 첫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추천사

“진혜진의 첫 시집은 '사랑'의 불가능성에도 불구하고 끝없이 '사랑'을 상상하고 실천하고 꿈으로 각인해가는 불가항력의 과정을 담은 격정적 고백록이다. 그 세계는 때때로 실존적 비애나 결핍의 악몽으로 나타나기도 하지만, 시인은 그 장막을 뚫고 자신만의 시적 진실을 하염없이 노래해간다.”

- 유성호 문학평론가·한양대 국문과 교수

진혜진 시인 프로필 | 2016년 경남신문, 광주일보 신춘문예, 시산맥 등단 | 시집 『포도에서 만납시다』 | 2021년 한국문화예술위원회 아르코문학창작기금 수혜 | 제11회 시산맥작품상 수상 | 도서출판 상상인 대표